

GROVERSE NEWS

2025.4.1(화) 그로버스 컨설팅 해외뉴스분석팀

[주요 내용]

○ 탄핵·수사 관련

-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부담 가중 (Bloomberg)
- 이재명은 정치혼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? (Diplomat)
-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중심으로 여야 갈등과 사회적 분열 심화 (환구시보)

○ 외교·안보

- 미 국방부의 중국 및 본토에 관한 기밀 문건 (WP)
- 트럼프가 퍼뜨린 불신에 각자 도생 중인 동맹국들 (NYT)
- 미국방장관의 '전선' 발언, 미 행정부 인식에 대한 우려 제기 (마이니치사설)

○ 미국 발 관세

-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준비 가운데, 표적이 된 아시아 (Bloomberg)
- 트럼프 관세 시행 임박에 한·일 주요 자동차주 하락 (WT)
- 트럼프 관세로 인해, 중국과 가까워진 아시아 동맹국들 (Newsweek)
- 중국 관영매체 “한일중, 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할 예정” (Reuters)

○ 미얀마 지진

- 한국, 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(Reuters)

○ 북한

- 트럼프,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입 문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(NK News)
- 북한, 첫 전국 소년단 지도원 강습 (NK News)
- 호주,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감시를 위해 초계기 투입 (NK News)

○ 한국 경제

- 지난해 말 원화 방어에 막대한 비용 지출 (Bloomberg)
- 韓 공매도 재개에 글로벌 투자자들 돌아올까? (Bloomberg)
- 韓 2월 광공업 생산,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 (Reuters)

○ 산불 재난

- 산불 실화 혐의 남성에 대한 조사 계획 (AP/UPI)
- 산불 대응에 대부분 저임금 임시직 노년층 투입 (Reuters)

○ 사회·기타

- 진실화해위, 1950년대북한군의민간인살해‘학살’로인정방침 (NK News)
- 배우김수현, 미성년자교제의혹부인(Reuters)

탄핵·수사 관련

<Bloomberg 3.31>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부담 가중 (Soo-Hyang Choi)
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또 탄핵 위협에 직면했으며, 진보·보수 진영 모두의 불만을 사고 있음
-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 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“중대 결심”을 경고
-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
-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불만은, 정책 입안자들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면서 나온 우려를 부각시킴

<Diplomat 3.31> 이재명은 정치 혼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? (Steven Denney 라이덴대학교 조교수)

-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당 대선 후보로 나설 유력 인물
- 이 대표는 대선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며 유력한 승자로 꼽히지만, 극심한 진영 대립과 중도층 내 불안감으로 대중적 매력에는 한계가 존재
-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. 스캔들과 검찰 수사, 공격적 언사로 굳어진 부정적 이미지와 청년층 불신도 극복해야 함
- 자신의 취약점을 인식한 이 대표는 2023년 말부터 대선을 준비하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고, 민주당을 ‘중도보수 정당’이라 칭하는 등 외연 확장도 시도
-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넘고 사회 분열을 피하려는 전략적 승부에 나섰다. 그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

<환구시보 3.31 기고> 韓 탄핵심판에 영향 미치는 3대 요소 (비잉다 중산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)

-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중심으로 한국 여야의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더욱 심화됐음

- 헌법재판소는 특히 '모두의 표적'이 됐으며, 여당과 보수단체의 압력이 두드러지고 있음. 국정 혼란에 지쳐가는 한국 국민은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

외교 · 안보

<WP 3.30> 미 국방부의 중국 및 본토 관한 기밀 문건, 헤리티지 재단 내용과 유사 (Alex Horton & Hannah Natanson)

-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월 중순께 대부분 페이지에 '기밀,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' 표기가 된 문건을 배포
- 새 지침에 따르면, 중국의 '대만 침공' 저지와미 본토 방어 등이 최우선으로 전환됐고, 여타 지역에서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위험을 감수하게 됨
- 따라서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,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 적시

<NYT 3.31> 트럼프는 어떻게 불신이 차오르게 만들어 미국의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했는가 (Damien Cave)

- 트럼프 대통령은 6세대 제트전투기 'F-47'을 소개하며 동맹국들에는 기능을 줄인 버전을 공급하겠다고 밝힘. 이 발언이 동맹국들 다수에 확인시키는 바가 있음
- 즉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.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경제, 국방 협력관계, 심지어 주권마저 위협하고 있음
- 동맹국 각국은 4월 예정된 상호관세 등 연이은 타격으로 인한 고통 최소화를 위해 협상하는 동시에 미국과 거리를 두는 중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가고자 노력
- 이제 폴란드, 한국, 호주에서 핵무기 개발이나 접근 보장에 대한 논의는 다반사.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자체 핵무장 논의를 논외로 하지는 않는다고 언급

<마이니치 4.1 사설> 미 국방장관의 '전선' 발언, 미 행정부 인식에 대한 우려 제기

- 방일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서태평양에서 유사시 "일본이 전선에 설 것"이라 발언.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미일 협력은 중요하지만, 일본을 미중 대립의 전면에 세우려는 발언은 우려 됨. 중국은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중요한 이웃 국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을 따르기만 해서는 국익을 지킬 수 없음. 호 주·한국 등과의 연대 강화와 중국과의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가 중요함

미국발 관세

<Bloomberg 3.31>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하려는 가운데 표적이 된 아시아 (Katia Dmitrieva)

- 한국은 한 세대 만에, 농업에 의존하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그 핵심에는 무역이 있음
- 문제는 이 성장모델이 미국의 고관세와 맞지 않는다는 것.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면서 괴로운 현실에 직면
- 상호관세는 아시아 국가에 시험대가 될 예정이며, 각국 정상들은 몇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함. 현재까지는 많은 협상과 미국 상품 구매 약속이 있었음
- 각국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. 그러나 중국 경제 침체와 요원한 소비 활성화로 그 방법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

<WT 4.1 서울발> 트럼프 관세 시행 임박에 한 .일 주요 자동차주 하락 (Andrew Salmon)

- 자동차 수출 강국인 한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은 31일, 오는 4월 3일부터 미국의 고율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
- 닛케이 평균주가는 4.05%, 코스피 지수는 3% 하락. 미국 관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품목은 자동차로, 미국은 모든 수입차에 25% 관세를 부과할 예정
- 자동차 산업은 한국과 일본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. 한국의 현대차그룹은 세계 판매량 3위의 자동차 제조업체로,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추
- 이시바 총리는 지난주 “자동차 관세는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”으로 우려. 트럼프가 입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어 일각에선 막판 절충을 기대

<Newsweek 3.31> 트럼프 관세, 아시아 동맹국들을 중국 품으로 밀어 넣어 (Hugh Cameron)

-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위협하면서,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
- 지난 30일 한일중 경제통상 장관들은 5년 만에 회의를 열고,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을 목표로 경제 협력 강화 의지를 발표
- 이번 만남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, 철강 관세, 4월 3일 발효 예정인 ‘해방의 날’ 관세에 3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짐

- 이는 미국 제조업을 회복하고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와 달리, 미 동맹국들이 미국의 경쟁국과 협력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함

<Reuters 3.31 베이징발> 중국 관영 매체 “한일중, 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할 예정” (Xiuhao Chen & Ryan Woo)

- 중국중앙TV(CCTV)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은 한국, 중국, 일본이 미국 관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, 31일 밝혔음
- 이러한 보도는 지난 30일 5년 만에 개최된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에 이어 나온 것. 3국은 공급망 협력과 수출 통제에 관한 대화 강화에 동의

미얀마 지진

<Reuters 3.31> 지진 발생 후 미얀마에 지원 제공한 국가는 ? (Khanh Vu 外)

- 규모 7.7의 강진이 발생한 미얀마에 구조대원, 탐지견, 구급대원, 수백만 달러의 지원금이 전달되기 시작
- 한국은 지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음
-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지역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며,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

북한

<NK News 3.31> 트럼프,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입 문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(Anton Sokolin)

-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확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며, 푸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음
- 해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

<NK News 3.31> 북한, 첫 전국 소년단지도원 강습 (Seung-Yeon Chung)

- 북한은 지난주 전국 소년단 지도원을 불러 모아 첫 대강습을 시행. 청소년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이들이 김정은과 당의 원칙에 따라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

- < 조선중앙통신>은 31일 소년단원들을 지도하는 지도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강습이 평양에서 4일간 개최됐다고 보도
-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거나 서한을 보내지 않았지만, 대강습을 조직하고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고 통신이 전했다

<NK News 3.31> 호주,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감시를 위해 초계기 투입 (Shreyas Reddy)

- 호주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(WMD) 프로그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장거리 감시 항공기를 배치했다고, 일본 외무성이 발표
- 호주 공군의 P-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3월 말~4월 중순까지 오키나와 공군 기지를 거점으로 불법 환적을 포함한 북한의 해상 활동을 감시한다고 설명

한국 경제

<Bloomberg 3.31> 한국지난해 말 발생한 혼란 속에 원화 방어 위해 막대한 비용 지출 (Catherine Bosley & Shinhye Kang)

- 한국은 지난해 말 달러 강세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시장 혼란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원화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음
- 31일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, 당국은 지난해 4분기 환율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38억 달러를 순매도. 지난해 2분기 58억 달러 이후 분기별 최대 규모
- 이러한 규모는 한국 당국이 미국의 무역 제한으로 역풍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시사
- 원화는 지난해 4분기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이며 11% 가까이 하락했지만,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달러 강세로 압박을 받고 있음

<Bloomberg 3.31> 韓 공매도 금지 해제...글로벌 투자자들 돌아올까? (Youkyung Lee)

- 31일 공매도 재개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. 한국의 MSC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
- 지난해 8월 이후 정치 혼란과 관세 불확실성 가운데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200억 달러 정도
- 픽테 자산운용은 매수 포지션 헤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한국 주식 매수를 늘릴 방침이라고, 지난 2월 언급

- 해외 투자자 복귀는 전환사채 발행의 부활을 촉발할 수 있을 것. 공매도 금지 동안 이는 대부분 사라졌으며, 특히 달러화 전환사채의 경우 감소가 심각했음

<Reuters 3.31 서울발> 韓 2 월 광공업 생산,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

(Jihoon Lee)

-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광공업 생산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대비 1.0% 증가 해, <로이터> 조사 예상치 0.8%와 비교됨. 전년동월대비로는 7.0% 증가

산불 재난

<AP 3.31 서울발> 경찰, 산불 실화 혐의 남성 조사 계획

(Kim

Tong-hyung)

- 경찰은 경북 산불 실화 혐의로 56세 남성을 심문할 예정. 이 남성이 의성군 야산의 묘소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산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됨
- 이 화재로 안동시와 영덕군에서 총 6,000여 채의 건물이 불탔으며, 의성군에서도 330여 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음. 고운사는 전체 30개 동 중 약 20개 동이 전소

* <UPI> 한국 산불 완전 진화...경찰, 산불 실화 혐의 남성 조사

<Reuters 3.31> 일당 50달러 위해 목숨 걸고 산불과 싸우는 한국 노인들

- 이번 한국 산불 진화 작업 최전선에 고령자 상당수가 투입. 화재 사망자 중에는 60대 소방관 3명과, 추락 사고로 사망한 73세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가 포함
-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, 계절성 산불 진화 인력 9,472명 중 약 73%가 60세 이상. 고령자들이 이들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
- 주로 화재가 발생하는 농촌지역 거주자는 대부분 노인층으로, 일당도 50달러(약 6만 원)에 불과해 저임금 임시직에 지원하는 청년이 거의 없음
-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“산불 대응을 위해 젊은 인력과 정규 직을 늘려야 한다”며, “이를 위해 예산 증액과 국민 공감대 필수”라고 강조

사회·기타

<NK News 3.31> 진실화해위, 1950년대 북한군의 민간인 살해 ‘학살’로 인정 방침

(Jooheon Kim)

-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(진실화해위)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대 병원에서 한국군과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을 학살로 인정하는 계획을 추진

- 이 사건 당시 북한군 약 50명은 1950년 6월 28~29일 서울대병원에 난입해 약 **1,00명**을 살해
- 위원회는 4월 8일 전체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, 정부에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 조치를 촉구할 계획
- 학살로 공식 인정될 경우, 이는 적대 세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학살로 기록될 전망

<Reuters 3.31 서울발> 배우 김수현, 미성년자 교제 의혹 부인 (Joyce Lee)

- 배우 김수현은 31일,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부인. 5년 전 1년여간 교제했지만,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은 아니었다는 것
- 김수현은 또한 “고인이 저의 외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”라며 그들의 관계가 김새론의 자살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반박
- 프라다를 포함한 여러 브랜드는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 이후 그와의 계약을 해지